

## 2009 년 주교교서

# 소 명

### - 교토 교구 21 세기 소명 촉진 원년 -

교오토 주교 바오로 오즈카 요시나오

#### 1. 교오토 대순교 52 명 복자를 맞이하여

새해를 맞이하여,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올해도 교오토 교구의 신자들에게 주어진 복음선교의 사명을 ‘모두가 하나되어’(주교의 모토)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올해도 부디 잘 부탁 드립니다.

작년 11 월 24 일 나가사키에서 ‘베드로 키베와 187 순교자’의 시복식이 열려 ‘교오토 대순교’ 52 명도 복자로 시복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교오토 교구에 크나큰 영광과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4 반세기에 이르도록 시복 운동에 온 힘을 기울여 온 전 교오토 주교 타나카 켄이치 주교님과 신자관계자 여러분, 크리스탄 연구회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오토 교구 시복 기념 사업을 위해 특별 헌금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주 1)

일본 교회는 주님께서 일본에서 시작하신 선교의 신비로운 기적을 기념해 새로운 복자들의 눈부신 신앙의 증거를 본받아 시복이라는 커다란 은혜를 오늘날의 복음선교에 되살려가겠습니다. ‘현대의 순교’를 이어갈 결심을 한 저희들이 앞으로의 선교적 생활에는 당연하고도 확고한 신념과 희생을 받아 들이는 용기가 필요 합니다. 교오토 교구는 공동선교사목을 추진해 복음선교를 하는 공동체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교오토 대순교의 복자를 맞이하여 순교의 마음으로 증언의 사명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앞으로의 교오토 교구 공동선교사목추진 노력목표의 하나로 소명촉진을 들고자 합니다.

#### 2. 교오토 교구 21 세기 소명촉진 원년

소명은 현대교회에 있어서 긴급한 과제입니다. 일본에 있어서는 사제와 수도자의 소명이 감소 정체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교구사제도 해외로부터 파견되어 온 선교사제, 수도자도 고령화가 진행되어 그 수가 매년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 다양한 가치관, 현세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 경제지상주의 경향, 가정의 붕괴 등이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요한 바오로 2 세는 ‘사제에의 소명의 위기는 문화적 환경과 그리스도인들의 견해와 실제의 행동에 깊이 기인합니다.’ 따라서 급히 필요한 것은 ‘소명을 촉진하는 교회 사목활동이 신앙을 기초로 하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리스도인 으로서의 견해”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주 2) 즉, 소명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기초를 굳건히 다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제와 수도자의 소명은 교회의 본성이며, 교회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 입니다.(주 3)

그것을 위해 소명의 탄생과 교육을 배려하는 ‘소명사목’은 교회전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며 이를 통해 우리들은 반드시 교회의 회심과 성장으로서 교회활동 방법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하게 됩니다. 소명을 촉진하는 것이 교회의 성스러움을 복돋는 비결이며, 반드시 교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지금 실천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활동을 교회차원에서 시작하기 위해 올해를 “교토 교구 21 세기 소명 촉진원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 3. 소명촉진 운동

‘소명’이라는 말은 사제와 수도자가 되기위한 부르심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이를 자유롭게 택하시는 것으로, 그 사람은 스스로 부르심에 답해 사제와 수도자가 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소명이 아닙니다. 신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저마다의 소명을 주십니다. 사제, 수도자, 신자 여러분과 폭 넓은 소명에 대해 생각하며 소명 촉진을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해 나아가고자 생각 합니다. 소명 촉진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 소명에 관해 ‘안다’
- 각자의 소명에 대해 ‘생각한다’ ‘선택한다’
- 소명을 위해 ‘기도한다’
- 소명촉진을 위해 ‘일한다’

이것에 관해 이하에서 서술해 보고자 합니다.

### 4. 생명을 소명으로서 생각 한다

‘소명’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창조하신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태대로 만드시어 (창세기 1 장 26 절 참조) 당신과의 깊은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주님께서 초대 하시는 것이 인간 존엄 중 가장 숭고한 부분 이다. 인간은 그 존재의 처음부터 신께 부르심을 받는다. 사실,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신께서 사랑으로 만드시고 항상 사랑으로 주님께 보살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사랑과 자유를 받아 들여 창조주께 스스로를 바치지 않으면 인간은 진리에 기초한 충실한 삶을 산다고는 말할 수 없다’(현대세계현장 19)

소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계시의 살아있는 움직임을 의미하며 인간 존재의 진리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 안에서 신의 부르심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 5. 소명에 있어서의 대화

소명은 부르시는 신의 사랑과 사랑을 가진 신에게 대답하는 개인의 자유와의 대화 입니다. 즉 신으로부터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의 인생이 신과의 대화 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자신의 소명에 대한 질문은 주님께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신과의 대화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 대화는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는 존재입니다. 소중한 것은 이러한 대화를 받아 들이는 일입니다. 신은 우리가 어머니의 태내에 있을 때부터 (에레미야 1 장 4 절 ~ 5 절), 즉 태어나기 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 그 ‘부르심’을 의식하며 그에대한 대답을 재촉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생애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며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 그 기초를 신과의 대화 속에 놓아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 6. 사제가 되고 싶다!

저는 올해 3 월 20 일로 사제서품 25 주년 은경축을 맞이 합니다. 중학생 때 사제가 되리라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된 저는 고교 1 학년 때부터 당시에 있었던 나고야 교구의 성 요하네 신학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 도쿄 가톨릭 신학교에 입학, 본격적으로 사제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학교에서의 6 년간 그리고 사제서품으로부터 25 년을 맞이한 지금 ‘자신은 정말로 사제가 되어서 행복 했는가’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그 이유는주님의 사랑에 대답할 수 있는 나의 길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신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진지하게 자신의 장래를 생각 하며 진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특별한 제자가 된다는 것을 동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동경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더욱 커다래 질 수 있다면, 그것이 소명을 느끼게 되었다는 증거 입니다.

## 7. 신의 뜻에 따른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다’ (요한 15 장 16 절). 소명이라는 것은 인간 한명 한명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사제와 수도자로, 또어떤 이는 신자로 부르십니다. 자신에 대한 신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 인들에게 소중한 의무 이며, 인생의 구체적인 선택을 행할 때는 이러한 신의 마음에 따라 생각한 후에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신의 선택은 밖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께서는 내 안 깊은 곳에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의 본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성령이 충만해져 걸으로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비친 자기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받아 들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은혜와 자유는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은 우리들의 인생 도중에 우리들과 함께 걸으시고 우리들이 단지 한 사람으로서의 생애를 살아 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걸어온 길 속에서 주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고독감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님처럼 하느님 아버지의 곁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소명의 원점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엠마누엘) 입니다.

## 8. 자신의 소명을 생각 한다

소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충만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신께서는 우리들이 그것을 알고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인간들이 서로 힘을 모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오토 교구의 모든 신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생각 합시다. 그리스도 인으로써 지금까지의 삶에 있어서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항상 생각 하며 사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자신이 의무를 어떻게 다 할 것인지, 모두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소명을 생각 하는 것과 신앙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은,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힘을 새롭게 받아 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 입니다. 그리고, 신자 스스로 자신의 소명을 진지하게 생각 할 때에 ‘사제를 길러 내기 위해 나도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자각과 책임을 갖게 되는 것 입니다.

## 9. 청년 여러분들에게

‘살아 있는 것은, 어찌면 우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 가는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희생하신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에 의해 살아 있는 것입니다’(갈라티아 2장 20절) 작년 6월 29일 성베드로, 성바오로 사도 대축일부터 시작된 ‘바오로의 해’는 올해의 축일까지 아직 반년이 남아 있습니다. 베네딕토 16 세 교황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바오로를 더 많이 일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 받은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람 이었다’ 라고.(주 4) 선교가 목표하는 소명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 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선을 느끼셨다면, 성령의 목소리에 순수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들의 인생을 결코 무조건 따르세요 라는 부르심을 받는다면 예수께 열심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하는 것의 위대함을 목표로 갖는다면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단 한 번 뿐인 인생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손에 넣고 싶은 보물인 것입니다. 남미와 필리핀, 베트남 등의 아시아등지에서부터 일본에 와 있는 외국적인 젊은 신자 여러분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도 꼭 일본에서 교구사제와 수도자가 되는 길을 생각 해 봐 주세요

## 10. 소명을 받아들일 자유로운 마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신으로부터 소명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그리스도인은 회심의 걸음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으로서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겨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공포는 자신의 소명을 얼만큼 확인하는가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자신의 안의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않는’ 증거를 찾아 냅니다. 자신과 타인에의 불만이 많을 때, 생활에의 일반적인 불만이 있을 때, 비관주의적 생각이나 시점으로 생각이 기울어 질 때, 또는 화가 나거나 분노에 차 있을 때 등 입니다. 이와 같은 때의 마음은 타인에게 단단히 닫혀 있어 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신의 부름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곤란할 때에도 평화로운 때에도, 고독할 때에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때, 작은 일에도 기쁨을 찾아낼 때,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무엇인가를 잃는 것을 두려워 말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갖을 때 등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신께서 자신의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순수히 받아 들이는 자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신은 당신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고 탄식하는 겁 많은 우리들을 지지하지 않고 깊이 사랑하시고, 자만심과 교만한 신앙을 정화해 주시며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앙을 희망하는 속에서 우리들을 강하게 해 주십니다.

## 11. 소명축진을 위한 기도, 일

교회는 祭司적으로 예언자처럼, 왕과도 같은 백성으로써 기도와 성사의 생활, 복음선교, 사랑의 봉사 등을 통해 사제에의 소명을 축진하며 그를 위해 봉사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자신 고유의 소명을 찾아 내어 그것에 관대히 대답하며 교회의 건설과 소명을 위해 함께 일하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소교구와 수도원의 공동의 기도로, 또 개인의 기도로 사제소명을 기원하는 기도를 정기적으로 바칩니다. ‘수확은 많으나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 수확을 주께 부탁 드리십시오’(마태오 9 장 37~38) 소명을 위한 기도는 소명이 주님으로부터의 것이며 주님에 의해 완성된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실로 소명을 위한 기도에는 전교회를 위한 끊임 없는 기도가 있음과 동시에 각자의 소명을 견도록 결심과 열의의 은총을 기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제와 봉헌 생활자는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강하게 현대적인 형태로 명확히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우선 자신의 소명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음을 바랍니다.

신자 여러분들은 가정과 일을 통해 사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공통祭司직’에 기초한 교회의 신자 고유의 일을 강하게 의식하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도록 전례와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성서를 가까이 하고 신앙을 알며, 더불어 복음선교자가 될 배움을 계속해 주십시오. 복음에 따른 동기 부여를 받은 봉사자들의 활동은 무상의 봉사의 의의와 희생과 자기 봉헌의 가치를 배우는 좋은 기회입니다. 분명 소명에의 계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 12. 마리아와 함께 소명을 위해 기도

사제소명은 신의 은총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사제소명을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에는 필요한 소명을 신으로부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신앙과 필요한 도움을 베푸는 일을 계속해 나간다고 하는 희망을 강하게 유지 해 갑시다.

소명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실친 하신 인간은, 다름아닌 성모 마리아 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몸이 따를 수 있도록’(루카 1 장 38 절)이라고 대답한 마리아의 모범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들도 넘치는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바오로가 말한 것처럼 그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우리들은 자신들이 미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께서는 우리들이 한계를 가진 죄 많은 존재임을 아시면서도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자신의 힘으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고 전파하는 것으로 빛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교토 교회 복음선교의 길을 성모마리아의 중재로 아버지 하느님께 바쳐 평화의  
임금이신 마리아님을 통해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계속 이어갑시다.

2009年1月1日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주1) 교토 주교 성당 카와라마치 교회의 고해실에 ‘순교자의 방’이 완성되어 성 프란치스코 자비엘 상(코베시립박물관소장)의 복제화, 교토 대순교도와 교토 성 라자로의 에칭글라스가 설치되었습니다.
- (주2)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현대의 사제소명』 37.
- (주3) 현재의 교회법에서는 종래 수도자라 칭했던 신분은 ‘수도회’와 ‘재속회’를 합해 ‘봉헌생활회’로 ‘사도적생활회’로 분류한다.
- (주4) 2008년6월28일 성베드로 파울 사도의 제일전날 밤의 기도